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부산광역시 동구
- 대한지역아동센터



2017. 7

최*영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멘티들과 굉장히 친해질 때쯤 활동이 끝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센터 멘티들의 연령이 굉장히 어린것을 고려하여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놀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특히 화산 폭발 실험, 모형 비행기 조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멘티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멘티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매주 새로운 멘토들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했을 때도 좋은 기억에 남는 멘토로 남고싶다.

주*연

역사교육, 미술활동,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등등 많은 것을 하며 4박5일을 보냈다. 처음엔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었는데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뿌듯하다. 내 머릿속에도 행복한 추억으로 저장됐듯이 멘티들의 머릿속에도 좋은 경험이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저장되면 좋겠다. 나의 조그마한 재능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봉사를 하며 나도 한 층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더 좋았다. 나의 재능으로 인해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봉사활동 이었다.

이*서

부산에 가서 멘티들을 처음 만나는 날, 멘토의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멘티들과 함께 다 해나갈 수 있을까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센터 안에서 멘티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 되었지만 그 걱정을 할 틈도 없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 씩 해가고, 그 속에서 멘티들에게 다가가고 멘티들이 다가와주고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4박 5일동안 센터에서의 시간이 감쪽같이 지나갔고 헤어질 때 즈음 아쉬워하는 멘티들을 보니 멘토로서 부족했지만 잘 따라준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지금도 멘티들이 밝은 모습들이 눈에 선해서 기회가 된다면 또 센터 멘티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박*혜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활동과 달리 이화봉사단은 멀리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하나하나 구성한다는 점이 봉사단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 주었다. 또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평소 교육에 큰 관심이 있던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아이들의 현장 속에서 하루의 오랜 시간동안 함께 머무르다 보니 종종 다투는 아이들은 달래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다른 활동에선 자주 접하기 힘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화 봉사단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 대해 다양하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이화의 봉사단원들과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뜻깊었다.

남궁*서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최초 계획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났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내가 생각한 이미지보다 더 순박하고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었다. 덕분에 아이들과 짧고도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이 아닌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아이들과 친해져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다음에 가게 된다면 더 긴 시간동안 아이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제게 있어 최고의 멘티였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멘토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다.

김*진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따라줄 때 보람을 느꼈다.

내 몸짓, 목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는 아이들을 통해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다.